

建築創造와 文化的 媒介問題

金壽根

本稿는 韓國 建築家協會 78年度 建築討論會 基調論文임

[1]

今世紀에 들어서 부터 藝術은 實証主義的, 自然科學的인 認識方法에서 藝術固有의 精神的 價値를 追求하는 方向으로 기울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獨自的, 價値的 存在로서의 藝術이 問題의 核心이 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時点에서 建築理論適用의 여러 角度에서 본 建築創造의 本質과 文化間의 媒介問題에 關하여 論하고 批判的 反省과 더불어 그 價値觀을 整理하므로써 다음 創造的 行爲에 어떻게 그 바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本論文의 主題가 된다.

그 主題를 把握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固有한 建築經驗과 더불어 오늘의 建築對象을 어떻게 判斷하며 媒介할 것이냐 하는 問題로 귀착될 것이나, 오늘날 藝術의 눈, 即 본다는 것의 意味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批判基準의 定立이 사실상 어려운 課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過去에는 記憶表象에 根據한 構想力이나 個人의 主觀的 判斷에 依하여 藝術活動을 하여 왔지만 오늘날에는 이른바 機械時代의 理論과 藝術의 適應이 非意識的인 組織社會의 集團의 意識이 人間을 疎外시키는 不安感을 造成하고 있기 때문에 藝術은 人間과 그 社會의 文化的 性格을 媒介하는 文化的 性格을 媒介하는 文化批評의 次元에까지 거슬러 올라 가야할 使命까지 떠 맡게 되었다.

建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人間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函數關係를 가지게 되므로 藝術이 媒体로서 媒介하는 役割의 性格을 달라지게 하고 있다.

過去에는 神과 自然, 그리고 人間情感이 중요한 內容이었던 것이나 오늘날의 建築藝術은 都市와 같이 人間과 그 社會가 中心主体 또는 目標가 되어 살아가는 方法을 脚色 또는 反映하는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人間과 그 社會의 生活 그 自体가 進行되어가는 實存의 本質이 重要해진다. 따라서 建築은 한 人間社會의 살아가는 方法의 理想像인 것이며 그 人間社會의 生活空間을 造形하는 力動的인 文化的 形態로 정의되고 있다.

建築家는 人間社會의 理想像을 바로 그 人間社會의 媒介하는 中間者로서 存在한다. 그 媒介체가 바로 建築空間이다. 이 三者 即 建築家, 人間과 그 社會, 建築空間은 서로 交互作用을 가진 函數關係를 가진 뿐더러 서로 循環關係를 가지고 서로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 媒介의 性格은 中間者인 建築가가 問題들을 處理하는 方法에 依하여 決定된다. 이때문에 建築家の 批判的 反省이 必要로 되는 것이다. 實踐的인 側面에서 中間者는 보편적 價値를 判斷하는데 公正性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의 判斷力은 그 自身의 個人的 主觀이나 個人的 趣味感情 나아가서 過去의 技術表象의 記憶에만 依存할 수 없는 人間社會의 時代的 精神을 媒介하는 時間, 空間에 對한 實存的 判斷力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時間, 空間은 形式論理가 아니라 機能論理와 結合體系 論理에 依하여서만 解決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形式論理에 根據한 實體概念은 오늘날 實體概念과 機能概念으로 解体되어 버렸다는 것을, 存在論 대신에 實存論이 導入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吟味해야 할 것이다.

[2]

이렇게 建築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原因은 바로 機械時代의 理論과 藝術의 適應이 자아낸 不均衡 때문이었다. 欠乏이 即 道具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思考方式의 實存論的 構成이 大量生産社會의 集團人的 組織에 依하여 道具主義(instrumentalism)로 받아들여졌다. Dewey의 藝術論에 依하면 素材經驗속의 行動이 스스로 存在하는 性能과 조화를 이룰때 이것은 予想하지 않았던 無意識속에서 그 完全한 充足을 가져온다고 하며 이때 關係들의 有機的인 共通의 媒介(Medium-Organic Means of Communication) 위에 새로운 經驗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이 即 藝術의 經驗이라고 Dewey는 論하였다. 이 경우에는 항상 媒介는 人間과 事物, 人間과 人間, 集團團體와 組織으로서의 關係構造의 同質的 融合이란 思考方式 위에

成立되는 것이다. 이런 實存論은 存在論과 다른점을 가진다. 이런 立場은 항상 大衆이 藝術的經驗을 社會 속에서 터득하는 그 行為로서만 存在하게 된다는 것이다.

道具主義나 實用主義(pragmatism)도 그 意味대로 이런 實存(existence)의 궁극적 基盤을 多數人의 生活이 그것을 긍정하는 生活存在 그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 實存을 통하여서만 本質(essential) 또는 眞性(essence)을 헤아리려고 한 存在論의 方向이 合理的으로 集團人的으로 適用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美國에서의 機械時代의 哲學과 美學의 適應은 하나의 커다란 特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미 人間은 「Subject」란 用語를 主觀的인 것으로부터 主體의인 것으로 해석하는 段階에서 Kant의 主觀의 確立에 뒤이어 생긴 새로운 認識論이 어떤 集團體, 即 人間社會 自身의 힘에 의하여 行하여진다는 意味가 될 것이다. 우리의 不安은 바로 여기에서 부터 생겨난다. 이런 不安은 흔히 機械主義(mechanism)의 否定的 側面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人間이 個人으로 存在하고 있느냐 아니면 巨人의 一部로 存在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쉽게 풀아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은 어느 個人이든지 어떤 社會組織의 構成員으로 소속하게 마련이지만 이런 社會組織에 소속하는 것으로만 그 對象의 感覺의素材조차 비로서 把握될 것이라는 段階의 文化가 出現하는 것 같다. 이럴때 순수한 意識을 가지지 못한 關係構造속에 人間이 融合되어지고 여기서의 媒介는 媒介體로서의 宇宙의 象徵主義가 하나의 特徵으로서 成立되어진다. 宇宙的關係로서의 抽象的媒介體가 巨人처럼 여기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機械主義에 對한 不安이 생겨난다. 이런 機械主義의 巨人이 藝術을 創造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실제로 이런 藝術을 創造하는 技能人들이 수없이 많다. 이에 對한 省察에서부터 새로운 疑問, 새로운 序曲이 發生하는 것이다. 本論旨의 展開는 바로 이러한 不安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이것을 가르켜 人間の 回復이라고 불려왔다. 이런 不安으로 말미암아 出現한 것이 바로 文化哲學과 環境論의 研究이다.

③

人間은 環境의 被造物이고 또 創造者이다. 한 人間の 價值觀, 態度, 意見, 性格과 行動의 形成이 環境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 이른바 環境決定論(Environmental Determinism)이다. 人間の 行態 또는 行動(Behaviour)은 人間の 感覺器官(Human Organism)들과 人間環境(Environment)과 $B=f(Ho \times E)$ 란 函數關係를 成立시킨다. 한 人間과 環境간의 交互作用을 科學的인 事實로 취급하는 것이 行動科學(behavioral Science)의 立場이다.

이 環境決定論의 函數關係에 依하면 環境이 人間形成에 影響을 미치는 것과 같이 人間은 서로 環境을 改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두가지 反作用들이 서로 循環關係

를 成立시킬 것이다.

環境은 한 人間을 둘러 쌓고 있는 外的存在들을 총칭하는 것인데 크게 나누어 人間環境, 物理的 環境으로 分類된다. 物理的環境은 自然(風土)과 物質的인 것들을 총칭하고 人間環境은 한 人間과 모든 社會들을 總稱한다. 人間은 他人들과 外的存在들과의 交互作用過程속에서 한 人間으로 形成된다. 이런 環境的 關係들이 進行되는 場所가 바로 生活空間(Living Space)이다. 人間環境을 說明하는 構造的 要素들로서 社會體制와 文化體制, 그리고 性格構造를 지적하게 된다. 이 三者간에는 서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

環境論의 觀點에서는 社會 및 文化體制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結果로서의 性格構造를 볼 것이다. 동시에 循環論的 觀點에서는 性格構造 그 自体가 造形活動의 계기를 일으키는 環境의 要素이며 이것이 社會 및 文化體制를 改造하는 獨立變數로서 作用할 것이다.

社會는 人間들의 각종 集團體들이며 文化는 社會를 誘導하고 管理하는 機能을 가진 精神的基盤을 意味한다. 性格構造는 社會 및 文化의 차이로 말미암아 精神的姿勢와 知覺反應形態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社會는 일종의 틀이요 文化는 그 틀이 담고있는 基本的 概念이요, 性格構造는 틀과 概念에 依하여 形成된다.

우리 建築家들이 注目하여야 할 集點은 바로 性格構造 即 그 精神的基盤의 共通的傾向의 中心要素들이 造形的契機 또는 力學的契機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民衆이 그 生活속에 創造源들을 出産시킨다는 點이다.

④

그런데 問題는 民衆性格의 價值觀이 과연 무엇이며 또 그 造形的契機들이 어떻게 評價되어 지느냐 하는 點이다. 이것은 中間者인 建築家의 藝術觀과 더불어 分명한 批判基準을 定立하여야 할 對象인 것이다.

心的存在는 그 自体만으로서 自然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心的인 것(Mind)의 單純한 現存性만으로서 아직 文化客體가 아니다. 따라서 그런것이 文化概念을 完全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心的인 것을 評價하는 精神的 存在, 即 評價하는 心的作用을 價值 自体와 또는 그 妥當性으로부터 各各 区分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即 精神的價值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精神的인 것이 아니라 價值 그 自体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文化는 價值있다고 評價한 目的에 依據하여 行動하는 人間에 依하여 直接 人爲적으로 出産한 것 또는 價值的 有無에 相關없이 人間에 依하여 意圖적으로 育成하고 保存되는 것들의 總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文化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普遍的으로 公認된 價值에 依하여 構成된 意味形象이 깃들어 있는 그런 實存의 客體의 總合體라는 意味로 文化를 解析하고 있다. 그런 文化의 客體가 이 價值와 결부되어 人爲적으로 育成 保存되는 것이다.

우리는 過去와의 關係를 過去의 民衆의 生命力, 印 人間의 經驗의 蓄積을 오늘날 이런 意味로서 가려내어 評價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 過去와의 關係에 있어서 裝飾的인 側面에서 오늘날의 建築과 아무런 關係가 없는 細部意匠이나 木造樣式的인 構造斷片들을 採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內面的인 類似性和 가깝워지려는 것이며 過去의 民衆이 무엇을 造形하려고 하였고 또 어떻게 그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였던가하는 그 方法自体를 밝혀서 이런 方法이 오늘날 建築問題解決에 도움이 된다고 認定될 때에는 서슴없이 過去의 것을 採用할 것이다. 이렇게 過去의 形態上的 表現뿐만 아니라 內面的 關係와 過去와의 連續感을 追求하는 것이 傳統의 意味로 解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現代建築家들 自身은 勿論 民衆의 精神의 基盤을 어떻게 形成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課題인 것이다.

5

建築에 關한 決定은 經營的決定과는 다른 經驗이라고 볼 수 있는 時間空間(Time Space)의 決定이다. 그 實際性은 지금 살고 있는 人間の 像, 잉태중인 未來의 人間の 像과 合致할 수도 있고 또 合致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決定은 各個人이나 民衆의 實存的인 選擇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政策決定者들과 建築研究者들은 誤判할지도 모르는 選擇의 成課를 考慮하여야 한다. 結局 모든 關聯되는 者들간의 意識的 合力의 建築과 그 政策決定은 各階層들의 與望들을 診斷하고 空間을 構造化할 수 있는 決定들의 作成을 必要로 한다. 短時日內에 政策의 基本方向이 될 수 있는 이런 審査決定을 作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三者들이 協議하여 決定을 가다듬는 形式은 相互間 問題解決에 對한 弁証法的인 交互作用 또는 循環作用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循環形式은 解決策을 提示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當面한 問題意識을 觸發시키고 交互作用을 일으켜서 反應을 觀察하는 것이 目的이 된다. 한없이 協議形式을 企圖하고 反復하여 아주 솔직한 方向을 模索하기를 期待하는 行爲이다.

이런 直接的인 交互方法은 여러 社會階層들의 權益과 合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出産되는 建築은 國民全體와 關聯되고 各個人의 權益과 一致하고 새로운 要求들을 收容할수 있는 體系와 內容을 提供하고 人間の 온갖 次元들과 關與하고 現實을 意識하고 眞實을 생각하는 人間像을 出産시킬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建築精神이 市民精神에 土着할 수 있도록 教育의 우선 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建築과 政治, 未來世代에게는 이 두 電極들 사이의 作用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그 結果로서 建築의 文化的 基盤이 形成되어야 할 것이다.

6

文化哲學的인 側面에서 볼때 人間環境 또는 空間이 人間을 形成하고 改造하는 要素라면 空間을 어떻게 改造할 것이냐 改造의 價值基準이 무엇이나, 結局 人間이 무엇이나에 問題가 귀착하고 ㅁ다. 人間이 무엇이나 하는 것에서 그 價值를 찾아내되 人間과 그의 空間을 改造하는데

適用하는 것이 重要한 問題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文化全體를 評價하는 文化哲學의 課題이기도 하다.

美國의 精神分析學者 Hollok는 人間心理의 七大不變要素들로서 親密感(Intimacy), 友愛心(Compassion), 觀念(Ideology), 信賴感(Faith), 自律性(Autonomy), 內密性(Privacy), 美(Beauty)를 列挙하고 이것들 없이 人間일 수 있느냐고 論한 적이 있다. 이런 Hollok의 見解는 ㅁ 東洋哲學에 接近하고 있는데 實際로 現代建築에서 이와 같은 用語는 建築概念으로서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1938年 美國의 Clarence Arthur Perry의 近隣住居單位構成理論(Neighborhood Unit)은 人間の 友愛心과 親密感에 依한 社會的關係의 成果를 期待하였고, 1958年 CIAM이 解散되던 해부터 Mies van der Rohe가 中心되어 主導하던 技術的 傾向에 對한 反作用으로 나타난 美國의 formalism傾向의 作品들과 유럽 國家들의 Brutalism 傾向의 作品들은 人間과 建築形態간의 親密感과 美를 回復시키려고 한 試圖이었고 最近인 1975年 1月 國際建築家聯盟(UIA)가 채택한 世界住居憲章(International Charter for Habitat)은 4個章中 第1章 人間(Man) 第2章 人間과 社會(Man & Society)가 包含되어 住居에 對한 人間の 基本權利와 內密性을 강조하고 있다.

1956年 Max Bill은 人間の 必要늘에 對應하여 造形되어 人間外界環境을 形成하는 모든 것들이 生活文化의 要素들이며 이 모든 것들이 現代生活內容의 客觀的條件들에 根據하여 綜合的調和로서 形成되어야 만 生活文化가 成立된다고 說明한 外界環境形成 또는 造形의 概念을 提案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使用하는 用語「Gestalt」는 機能과 形態와 美의 綜合概念, 「Gestaltung」은 이런 綜合概念에 依한 造形行爲를 意味하고 있다.

우리가 對象으로 하는 建築創造는 建築空間, 建築의 把握, 建築의 批判的反省, 建築의 對象을 正確히 把握하고 理解하는 데서부터 始作된다.

建築은 人間과 그 生活의 保護施設에서 비롯하여 社會 및 文化의 管理施設과 産業의 經營施設을 탄생시켜 왔다. 時代와 地域에 따라 새로운 實用施設들을 탄생시켜 왔듯이 建築은 人間保護와 그 社會生活이 要求하는 諸條件들에 關한 性能들을 만족시키는 時間空間또는 時代空間을 造形하였다. 이와같이 建築空間은 人間保護와 그 社會生活의 要求條件들을 反映하는 것이다. 항상 建築은 人間이 發見하여 人間을 爲하여 創造하고 人間에 依하여 使用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建築의 把握은 建築空間의 定義에서 시작하여 工學과는 다른 固有한 把握을 취한다. 그것은 人間과 그 生活속의 本質을 反映하는 空間構造로부터 시작하여 그 本質的 性能들을 수행하는 造形構造와 그 形態가 實存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次元들을 體系的으로 脚色하는 設計方法과 그 節次가 問題가 된다. 이 設計는 Program과 Project 間에 介入하는 固有한 造形表現手段인 것이다. 空間構造의 內容을 把握하는 立場은 항상 變함이 없으나 그 造形

表現手段들은 時代와 地域에 따라서 또는 個人에 따라서 또 處理하는 方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建築의 批判的 反省은 空間體系가 미치는 社會的 成果가 무엇인가 하는데 있으며 이는 建築自體의 性格上, 都市化, 都市計劃 및 建築物 對象이란 세가지 次元들로 区分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特히 建築的 對象의 次元에 있어서는 建築的 對象 때문에 作用하는 또는 空間性能을 수행하는 形式體系를 目標로 삼거나 그렇지 않으면 建築的 對象이 문제로 삼는 社會生活에 期待하는 成果를 目標로 삼게 된다.

建築的 對象에 있어서 重要한 問題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日常生活의 즐거리를 만들었는가 하는 점보다 그것이 어떻게 日常生活을 創造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價値가 부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功利的인 것을 넘어서 生活의 멋과 精神의 余裕를 生成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生活의 멋과 精神의 余裕의 開發이 重要하다고 생각한다면 建築藝術은 높은 次元의 精神性에 到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建築對象의 將來는 오히려 人間自身에 依한 社會的 生活의 創造속에 實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建築對象이 期待하는 成果는 단순한 心的 作用이 아니라 人間에 依하여 直接評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評價基準이 되는 價値가 항상 作用한다. 이런 價値가 바로 建築文化의 傾向이 된다. 建築藝術은 性格上 이런 文化的 價値를 反映하는 媒介의 性格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이와 같이 建築創造는 實質的인 性能과 文化的 價値를 反映하는 性格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文化的 批判의 目標가 되어진다. 간혹 造形藝術家 속에서 우리는 그가 속해 있는 藝術領域의 美만을 追求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한例로서 陶磁器를 만드는 造形藝術家가 그릇으로 使用하는 陶磁器를 日常生活속에서 使用하기 爲하여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所藏裝飾品으로서 製作하는 現象을 들 수 있는데 그릇이란 機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生活文化要素로서의 價値를 상실하였다는 批判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實用造形物의 경우 그것이 實用的機能 또는 實用的 契機에 의하여 그 機能과 形態 그리고 美가 綜合적으로 調和된 것으로 制作되어 지는 것이며 實用造形物은 生活속에 實存하는 價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價値判斷이 잘못되었을 때에 文化的 批判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建築藝術의 경우에도 이런 價値判斷이 잘못된 예가 없지 않을 것이며 建築은 陶磁器의 경우 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要素들과 關連되어지기 때문에 그 要素들과 有機的인 結合體系에 있어서 價値判斷이 잘못된 危險이 더 많다. 이런 過誤는 어느 경우에도 그 藝術領域이 固有한

美라든가 기교 또는 趣味感情에 依하여 生活文化 要素들의 本質을 錯覺할 때 일어나기 쉽다. 藝術이 文化的 價値를 媒介하는 性格을 가진 것이라면 이런 實用藝術에서의 實存的 價値의 喪失 또는 誤判은 文化的 批判의 目標가 될 것이다

만약 建築造形物이 人間性格形成과 生活活動에 큰 影響을 미치는 空間이라는 것을 인정할 경우 建築藝術은 直接的으로 또는 間接적으로 人間의 本質과 그 運命에 影響을 미치는 舞台를 提供하는 活動이 될 것이다. 建築的 對象의 장래는 바로 建築造形物을 媒体로 하여 人間自身에 依하여 바람직한 社會生活을 잉태하고 出産하는 그 속에 存在한다는 것을 意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장래를 期待하기 爲하여 文化的 價値를 媒介하고 反映하여야 할 것이다. 建築家는 모든 人間을 保護하고 모든 人間이 살아가는 理想的인 空間像을 構想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그 造形技法들을 發展시켜야 하며 이로서 建築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9]

이상과 같은 建築創造의 諸樣相에서 보이듯이 建築家가 가지고 있는 社會的 役割과 그가 가지고 있는 價値判斷의 基準은 相當히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前述되어진 바와 같이 建築家의 役割은 民衆의 價値基準을 把握하고 民衆이 가진 文化的 現實로서 媒介하는 役割을 가지며 그속에 內在하는 傳統을 把握하고 여기에 새로운 傳統을 創造하는 性能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 創造의 價値는 建築家 自身을 包含한 民衆의 文化的인 價値 判斷基準에 따라 그 質的인 變化가 있게 된다.

文化的 生命力은 眼目(Eye), 知識(Brain), 行動力(Action)의 三者間의 좋은 平衡關係에서 이루어지며 이 三者가 上向의 方向性을 가질 때 가장 훌륭한 結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建築家는 이러한 平衡속에서 文化創造의 核心的인 에너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같은 理由로 建築文化를 創造하는 直接當事者(施工主, 政策 決定者를 包含한 Patron)들에 있어서도 自己의 傳統을 理解하고 또한 自己自身の 傳統을 創造하는 姿勢와 努力이 要請한다. 만약 建築創造를 人間과 空間과 時代精神의 函數關係속에서 把握한다면 여기에 「Ra」라는 因子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즉 $A=f(H+S)t+Ra$ 라는 方程式으로 表現하였을 때 이 「Ra」는 그 地域에 特殊한 것, 유니크한 것으로서 世界人類의 지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 因子로서의 「Ra」를 통하여 추출되는 우리의 것, 한국의 것(Koreanese)을 찾아야 하고, 또 이러한 地域마다의 精粹를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世界人類에 봉사하는 일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이러한 意味의 韓國學派가 세워질 것을 期待한다.

建築家 空間社代表